

#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과 용서와의 관계

조미정<sup>1)</sup>, 이미나<sup>2)</sup>

## Marriage Conflict and Marriage Satisfaction and Forgiveness of Double-income

Mi-Jeong, Cho<sup>1)</sup>, Mi-Na Lee<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과 용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G시와 M시 지역의 부부 각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부부갈등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용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후에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과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부부갈등 실태에서 개인적, 부부 관계적, 부부갈등 전체, 공동생활 갈등, 제 삼자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용서 간 상관관계에서는 결혼만족도가 긍정적 감정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셋째, 맞벌이 부부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용서는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용서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용서는 긍정적 감정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 시 용서는 매개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부부갈등 시 치유와 조절을 위해 용서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맞벌이 부부, 부부갈등, 결혼만족, 용서, 결혼생활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forgiveness of a married coupl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74 couples in G and M cities. As a research tool, the marital conflict scale, marital satisfaction scale, and forgiveness scale were used. As for the analysis method, SPSS 21.0 was used, and the data processing was performed using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to find ou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To find out, a t-test and ANOVA test were performed, and a Scheffé test was performed

Received (April 6, 2020), Review Result(May 22, 2020)

Accepted(June 21, 2020), Published(June 30, 2020)

<sup>1</sup>Ph.D, 61027, Department of Human Service Education, Kwangshin University, 36 Yangsan Residence, Buk-gu, Gwangju

E-mail: fort0191@naver.com.

<sup>2</sup>(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61027, Kwangshin University Faculty of Welfare Consultation Convergence, 36, Yangsan Residence, Buk-gu, Gwangju

E-mail: lmn4780@naver.com

afterwards.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verification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the marital conflict of the research subjects, personal, marital relations, marital conflict as a whole, community life conflict, and third party conflict.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marital satisfaction, and forgiveness, marriage satisfaction showed the highest positive emotion. Third, forgiveness was found to be mediated i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marital conflict, the lower the level of forg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forgiveness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positive feelings, and forgiveness had a mediating effect in marital conflic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vention of forgiveness is necessary for healing and control in marital conflict.

Key words: Working couple, couple conflict, marriage satisfaction, forgiveness, marriage

## I. 서론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개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화되어가는 경향이 많다. 이는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갈등상황을 유발시키며 기능과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결혼은 한 명의 배우자를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이며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맞추어서 이해하고 화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결혼으로 결합된 부부가 서로 다른 생활과 환경에서 성장 하므로 개인적 특성이 다른 두 사람이 공동의 가정을 이루며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다보면 각자의 욕구들을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것이 부부갈등이다. 부부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결혼생활에 만족도는 낮아지며, 일상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2019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11만800건으로, 전년보다 2천 100건(2.0%)증가했다. 이는 부부갈등 및 결혼불만족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는 가정 내의 불공평한 가사분담은 단기적으로는 아내들의 역할과중 및 역할갈등을 고조시키고, 스트레스 및 결혼생활 갈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정 및 직장에서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콜맨(Coeman)은 “부부간에 상충되는 목표, 욕구, 기대의 불일치를 부부갈등이다”고 하였으며, 갈등은 부부가 서로 다른 욕구, 감정, 사고방식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1]. 코서(L. A. Coser)는 부부갈등을 가족체계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부부 서로간의 기본 목표의 차이와 자원의 차이로 인해 각자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상호이해의 결여와 오해 같은 장애물로 인해 방해받는 어려움의 정도, 혹은 긴장으로 정의하였다. 스나이더(M. Snyder)는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불일치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부조화를 경험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자녀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 부부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지만 잘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어 부부갈등은 더 심화되어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지닌 채로 결혼생활 전반에

결쳐 역기능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갈등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부갈등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결혼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고 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로 인해 부부관계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 부부는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성격적 특성이 다르므로 상호적응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상호작용의 과정 중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은 부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고 또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은 부부가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면서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등의 가족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결혼 만족도가 높은 부부와 낮은 부부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갈등의 존재여부는 결혼 만족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고 갈등대처 방법에 따라 결혼 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3].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부부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갈등대처 방식에 따라 결혼생활 적응 및 결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4]. 따라서 갈등의 존재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런 갈등은 가족 성원간의 유대감 형성에 기초를 제공한다. 즉, 부부는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고 그리하여 부부간의 상호 작용이 긴밀해지면서 보다 안정된 가정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5]. 펄린 등[6]은 부부간의 갈등을 배우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적응수준이 매우 낮으며, 반대로 갈등이나 문제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서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느낄 때, 높은 결혼 만족도가 나타난다고 했다. 또한,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갈등 대처 행동에서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갈등 대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부 갈등 문제를 부부 공동의 문제로 지각하여 상호 만족 하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은 결혼 생활의 적응이 높은 반면 부부가 서로 탓하고 혹은 회피적으로 대응하며 자신보다는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부부들은 결혼 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한편 부부권력의 과정은 부부 상호작용과 관계성을 중시하며 실제 권력행사 방식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부부 간 합의, 조정, 협상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의사소통방식이나 갈등해결전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서는 갈등으로 인한 분노와 고통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분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단계로 자신의 감정을 바꾸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용서하는 감정으로 전환시킬 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용서는 인류의 삶에 있어서 용서의 가치는 보편적인 것으로 용서는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용서를 하거나 받게 되는데 용서는 역사, 종교, 철학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철학자 노스(J. North)는 용서가 이루어질 때는 가해자를 연민과 관대함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보고, 그에 대해 스스로 포기한 권리를 재인식할 수 있게 되며, 진정한 용서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 하였다. 첫째, 상처 받은 사람이 실제 상처를 재인식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정당한 보복을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자비를 선택한다는 점, 셋째,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나아

가게 하는 도덕적인 행위라는 점이다[7]. 즉, 용서는 부부갈등에서 발생하는 상처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부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되고 있다. 부부용서는 가족치료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용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핀참(F. D. Fincham)등은 '용서가 부부갈등의 효과적인 해결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용서의 두 가지 차원인 부정적 차원과 긍정적 차원 즉 보복행동과 자비심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남편의 갈등해결에 아내의 자비심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내의 부부갈등 해결에 남편의 보복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이 드러났다[8].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바꿔 긍정적인 용서하는 감정으로 전환시킬 때에는 인간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한계와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가 주는 유익과 그에 따른 긍정적인 여러 측면을 경험하거나 용서의 자유 함을 누리본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버리고 용서의 감정을 선택 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용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심리적 안녕감과 긍정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 특히 용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부부관계와 용서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엔라이트와 핏츠기본스는 용서가 부부문제에서 오는 분노와 상처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상처, 고통에 용서가 치료적 기제로 작용되어 부부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용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용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부부갈등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과 용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 결혼만족, 용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이 용서에 미치는 효과는?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G시와 M시 지역의 부부 각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 및 누락분 26부를 제외한 최종 27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으로는 남자는 54.0%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46.0%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8.5%, 20-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3.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의 경우 대학원 이상이 51.1% 대학졸업이 30.7% 전문대 10.9% 고졸이

5.8% 중졸이하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월 평균 소득은 100-200만원이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300만원이 33.6% 100만원 미만이 10.2% 300-400만원이 7.3% 500만원 이상 5.8% 400-500만원이 5.1%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로는 핵가족이 94.9% 확대가족이 1.5%로 기타 3.6% 순이었으며, 결혼기간은 20-24년, 30년 이상이 각각 20.4% 나타났고 15-19년, 25-29년이 각각 16.8% 10년 미만이 13.9% 10-14년이 11.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형으로는 연애결혼이 59.1% 중매결혼이 29.2% 절충혼이 1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전 교제기간은 1년 미만이 6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년 이상 16.8% 2년 14.6% 3년 7.3% 순이었고, 자녀수는 2명이 57.7% 3명 27.0% 1명 7.3% 0명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 2.2. 연구도구

### 2.2.1.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최규련[10]이 개발하고 이경희[11]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적 갈등 9문항, 부부관계적 갈등 9문항, 공동생활 갈등 4문항, 제3자 갈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방식 5점 평정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 2.2.2.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 척도는 허윤정[12]이 18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만족, 사회심리적 동질감,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합리적인 부부관계로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방식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92이었다.

### 2.2.3. 용서 척도

용서척도는 김광수[9]가 번안한 용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0문항으로 각각 10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긍정적 정서, 10문항, 부정적 정서의 부재, 10문항, 긍정적 인지의 존재 10문항, 부정적 인지의 부재 10문항, 부정적 행동의 부재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방식 5점 평정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94이었다.

### 2.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 결혼만족,

용서 실태를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이 용서와의 효과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과 Sobel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용서의 실태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용서의 실태를 알아보면 첫째, 부부갈등 중 개인적 갈등의 평균은 2.29점, 표준편차는 .57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갈등의 평균은 2.20점, 표준편차는 .66으로 나타났고, 공동생활 갈등의 평균은 2.02점, 표준편차 .76으로 나타났으며, 제 삼자 갈등의 평균은 1.97점, 표준편차 .77로 나타났고. 부부갈등 전체의 평균은 2.12점, 표준편차 .58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평균은 3.86점, 표준편차 .7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용서 중 긍정적 감정의 평균은 4.10점 표준편차 .68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 부재의 평균은 4.11점, 표준편차 .70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행동의 평균은 3.71점, 표준편차 .49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행동 부재의 평균 3.97점, 표준편차 .55로 나타났다. 긍정적 사고의 평균은 4.48점, 표준편차 .48로 나타났고, 부정적 인지부재의 평균 4.61점, 표준편차 .55로 나타났으며, 용서 전체의 평균은 4.16점, 표준편차 .48로 나타났다.

#### 3.2. 부부갈등, 용서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결혼만족도 전체는 개인적 갈등과  $r=-.675, p<.01$ 로 나타났으며, 부부 관계적 갈등과는  $r=-.692, p<.01$ 로 나타났고, 공동생활갈등과는  $r=-.575, p<.01$ 로 나타났으며, 제 삼자 갈등은  $r=-.590, p<.01$ 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전체는  $r=-.747, p<.01$ 로 나타났고, 긍정적 감정은  $r=.835, p<.01$ 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감정 부재는  $r=.671, p<.01$ 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전체는 긍정적 행동과  $r=.699, p<.01$ 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행동 부재와  $r=.585, p<.01$ 로 나타났고, 긍정적 사고와는  $r=.664, p<.01$ 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지부재는  $r=.511, p<.01$ , 용서 전체는  $r=.793, p<.01$ 로 나타났다. 다음[Table 1]과 같다.

[표 1] 부부갈등, 용서,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forgiveness, and marriage satisfaction (n=274)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개인적 갈등	1												
2 부부관계적 갈등	.783**	1											
3 공동생활 갈등	.490**	.582**	1										

4	제 삼자 갈등	.532**	.519**	.736**	1
5	부부갈등 전체	.806**	.840**	.857**	.851** 1
6	긍정적 감정	-.600**	-.626**	-.509**	-.481** -.652** 1
7	부정적 감정 부재	-.688**	-.696**	-.550**	-.498** -.713** .634**1
8	긍정적 행동	-.569**	-.512**	-.482**	-.494** -.607** .828** .504** 1
9	부정적 행동 부재	-.670**	-.688**	-.471**	-.410** -.651** .590** .797** .535** 1
10	긍정적 사고	-.498**	-.470**	-.503**	-.443** -.568** .791** .583** .710** .525** 1
11	부정적 인지부재	-.577**	-.610**	-.512**	-.464** -.637** .535** .810** .440** .737** .618** 1
12	용서 전체	-.721**	-.725**	-.603**	-.555** -.765** .871** .875** .786** .837** .828** .827** 1
13	결혼만족도 전체	-.675**	-.692**	-.575**	-.590** -.747** .835** .671** .699** .585** .664** .511** .793** 1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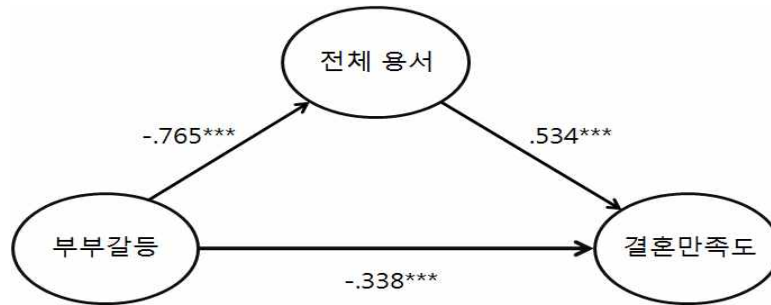
### 3.3. 맞벌이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검증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법에 따라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47$ ,  $p < .001$ ). 2단계에서 부부갈등은 전체 용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765$ ,  $p < .001$ ). 3단계에서는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338$ ,  $p < .001$ ), 전체용서도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534$ ,  $p < .001$ ). 다음[Table 2]과 같다.

[표 2]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전체용서의 매개효과 검증 (n=274)  
[Table 2] Marriage Conflict Mediating Effect of Total Forgiveness in Marriage Satisfaction Relationships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R^2$	adj $R^2$	F
1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928	.050	-.747	-18.524***	.558	.556	343.130***
2	전체용서	부부갈등	-.640	.033	-.765	-19.598***	.585	.584	384.068***
3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420	.067	-.338	-6.298***	.676	.674	282.875***
		전체용서	.794	.080	.534	9.950***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 부부갈등-용서-결혼만족도 검증모형

[Figure 1] Couple conflict-forgiveness-marriage satisfaction verification

#### 4. 논의 및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키고 환경에 대한 적응이 원만하지 못해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3][13]를 지지한다.

둘째, 부부갈등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용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 용서의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4]를 뒷받침한다.

셋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결혼만족도는 긍정적 감정과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부부와 부부 상담실을 방문한 부부들 대상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14,15]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에서 용서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문제의 해결전략으로 용서의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반영할수록 부부문제의 해결능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3][4]를 지지한다. 특히, 용서와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결혼만족도에 대한 부부갈등대처방식과 용서와의 관계에서 용서가 결혼만족도를 의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맞벌이 부부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전체용서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전체용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계 매개효과 검증결과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관계에서 전체용서는 부분 매개하였다.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전체용서를 매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용서수준 또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용서: 긍정적 감정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 갈등 시 용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부부갈등 시 용서의 기능과 역할이 치유와 조절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대상이 일부의 지역이므로 지역별 다양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 부부의 부부갈등이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용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성별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요인검증을 통해 부부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용서의 매개효과는 검증하였으나 용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에 대한 탐색이나 또 다른 매개변인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용서의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넷째, 부부관계에서 긍정적 감정이 결혼만족도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맞벌이 부부 뿐만 아니라 일반 부부 대상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감정을 다루는 방법 등이 요구된다.

## Reference

- [1] Moon Lee,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marital conflict through dialogue, Sangmy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 S S Hwang, Self-effects and counter-effects of devotion of marital relations to dedication behavior, marital conflict, and marriage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2.
- [3] M J Bae, Marital Conflict and Forgiveness and Marriage Satisfaction, Jeonj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4] Y S Yang,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y and forg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 [5] B S Jeong, Role Conflict and Marriage Satisfaction of Housewives in Early Marriag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1997.
- [6] L. I. Pearlin, & C. Schooler,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978.
- [7] E M Kang, The Effect of the Forgiveness Group Counseling Program on Interpersonal Stress and Coping Skills of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7.
- [8] F. D. Fincham, S. R. H. Beach, & J. Davila, Forg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1), 72-78. 2004.
- [9] K S Kim, Forgiveness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9.
- [10] G R Choi, Functionality of the family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oping strategies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coup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6), 99-113. 1995.
- [11] K H Kim, Types of marital relationship according to conflict and intimacy perceived by wife, Ph.D. dissert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 [12] E J Her, A Study on Marriage Satisfaction According to Marital Relationship Type- Focused on communication and conflict/resolution methods,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7.
- [13] U L Cho,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 Action and Marriage Satisfac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14] S M Lee, G Y Jeon,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 Coping Methods of Husband and Wife in the Early Marriage on Marriag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5), 92-101. 2010.
- [15] I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forgiveness experience for couples' crisis. Hanil Jangs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